

지역 소식통

완주군, 교육시설 주변

30m 흡연 금지 홍보

완주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완주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터·스티커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금연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290-313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완주군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완주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재 지원 사업장의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연내 준공 완료 예정이다.

또한, 군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년 5월 3일)으로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사업장도 지원하고 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내년에도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인입선 건설사업 반영 강력 요청

완주군-익산시,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관련 공동 건의문 국토부 제출

완주군과 익산시가 완주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21일 상승기 완주군 건설안전국장 김성도 익산시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7월 말 완주군과 익산시는 완주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불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양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의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방문은 그 일환으로 양 지자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재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0만 평의 수



완주군과 익산시가 완주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소특화국가산단까지 더하면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된다.

익산시 역시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이 구축돼 있고, 여기에서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된다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철도 수송체계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익산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지역경제 위해 6개 기관이 '뭉쳤다'

완주군-군의회-고용노동부전주지청-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북지방조달청-완주산단진흥회 협약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청, 조달청 등 6개 기관과 뜻을 모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1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김용현 완주산단진흥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지원 △주요정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초보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에로 해소 △채용 및 고용여건개선에 관한 맞춤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부족으로 자금, 판로, 인력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공동

으로 적극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경제불황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관내 중소기업들은 기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장에 필요한 솔루션 제공으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크게 반기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우수팀 2개 선발

최우수 공영개발과 구축주 팀장·최우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김제시는 21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3명과 우수팀 2팀(4명) 등 총 7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 12건, 팀 5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 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최우수 공영개발과 구축주 팀장 △(팀)최우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개인)우수 보건위

생과 조경진 주무관, △(팀)우수 건축과 건축신고팀 △장려 투자유치과 이형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 중 개인 부문은 <누구나 살고 싶은 '힐스타운 시읍' 공모로 인구유입·기업유치·예산절감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4개 부처 협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돼 인정을 받았다.

또 팀 부문은 <취약계층 '밥심'이 되어주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천사무료급식소 유치로 예산 절감 기여하다!>로 결식 위험에 있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서 (사)한국나눔연맹과 협약해 천사무료급식소를 전국에서 10번째, 전북에서는 최초로 유치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근경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 휴가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리더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 활동

성덕면 생생마을 관리소, '찾아가는 이동점빵' 운영 방향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덕면 단계장 및 활동가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농촌 마을은 구멍가게, 점빵이라 불렀던 식료품 가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동권 제약 등 생필품 구입의 불편함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농촌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성덕면 생생마을관리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시범운영 하고 있다.

성덕면 생생마을 관리소에서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식품 사막화 해소

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점빵'의 지속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동락점빵' 운영으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와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를 방문했다.

여민동락공동체 및 동락점빵 운영방법 등 사례강의를 듣고 이를 성덕면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 통해 '찾아가는 이동점빵'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며, 김제시도 농촌 마을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보탬 될 것"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제단야로타리클럽, 자매결연 맺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과 김제단야로타리클럽(회장 최미라)이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향상과 기관 간 상호발전 등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단야로타리 클럽은 지난 2007년 창립 이후 매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관 행사 자원봉사 및 명절 후원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

향상과 교육활동에도 힘을 것을 약속했다.

최미라 회장은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교류하며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봉사하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택 관장은 "그간 지속적인 봉사 와 기부로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는 단야로타리클럽과 협력을 통해 김제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